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다

Unveiling the judging process is the best method

김희곤 | (주)방충 건축사사무소 대표

제8회 한양대 아시아 국제건축올림피아드 심사후기

가끔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머리가 빠근해지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심사 전에 이미 전화를 받거나 사전설명을 듣고 불편한 마음으로 심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심사과정을 모니터로 공개한다고 부산을 떠는 기관들도 있지만 심사과정을 소상하게 밝힌 경우는 보지 못하였다.

그즈음 나는 현상설계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그 진위를 파악하느라 여기저기 전화다이얼을 돌리고 있었다. 김 선생이 참여할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어떠한 제안을 받을 때마다 허망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지난 4월 18일 제8회 한양대 아시아 국제건축올림피아드 심사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심사를 진행하고 25일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6명의 심사위원이 오전에 100여 작품 중에서 수상작 후보를 선정하고 오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화상으로 작품평을 교환하고서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오로지 좋은 작품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눈과 손이 양심의 저울에 따라 바빠 움직였다. 주위 심사위원의 입김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바람을 잡지도 않았다. 조용하게 개념과 스케치와 모델을 오가며 학생들의 생각과 탐과 잠재력을 바빠 읽었다. 어쩌면 나는 고등학생들의 작품을 심사하며 나 자신의 지나긴 관습적 퇴행을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보았는지 모른다. 적어도 저 젊은 영혼들이 기성건축사로 성장할 때쯤에는 지금처럼 공모전의 심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심사기준 하나

모델의 완성도에 치우치기보다 개념과 스케치와 모델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건강성을 살펴보았다. 21세기 대입전형에서 부르짖는 창의적 인재상에 부합하는 원석을 골라내어 대학이 미래의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라 믿었다. 아름다운 도식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투박한 아이디어일 지라도 신선하고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발전된 개념스케치와 모델의 상관관계를 짚어가다 보니 건강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견이 다를 경우 어쩔 수 없이 후보작의 개념을 심사위원들이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본질을 확인하다보니 심사위원간의 직관에 의지하던 감정이 이성적으로 바뀌었으며 그 순간 나도 몰래 눈과 귀가 열렸다.

심사기준 둘

학원에서 잘 길들여진 스케치와 모델은 피하기로 하였다. 개념 도출과 상상력의 진화과정이 살아있는 스케치와 모델로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치가 뛰어난 대부분의 작품은 개념의 뼈대가 빠진 모델의 복사본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기성세대의 현상설계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다. 신선한 개념의 전개과정보다는 화려한 모델과 투시도와 조감도만으로 심사위원의 시선을 유혹하는 작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외주비만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스페인 유학당시 지도교수와 참여한 대만 정부종합청사 국제현상설계에서 모형은 학생들의 손을 빌어 최대한 간단하게 개념덩어리만 만들고 투시도와 조감도도 개념을 보충하는 정도에서 학생들이 작업한 희미한 도판이 전부였다. 2명의 대학원생과 1명의 재학생이 만든 작품이 신기하게도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작금의 어려운 건축현실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화려한 투시도와 조감도와 도판까지 엄청난 외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서
스페인 국립마드리드 건축대학(재)
생건축전문가를 졸업하고 현재 서
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
이며, 2017UIA서울 유치위원회 위
원과 2012서울건축제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제작비를 지분하게 만드는 현상설계에서 젊은 건축사들은 자신의 꿈을 펼쳐볼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 4시간 만에 복잡한 주제를 해석하여 원고지에 자신의 개념을 정리하고 스케치와 모델을 만들어낸 젊은 거장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만으로 심사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어려운 건축현실에 미래건축학도들이 건실한 건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득권시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제도와 규정과 법을 손질하는 것, 건축사 보수율과 건축사의 사회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림피아드심사의 공정성을 기성 건축사시장까지 확장하는 일이 시급하며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심사기준 셋

후보작으로 오른 작품들을 둘러보다 비슷한 경향의 작품들 일색임을 확인하는 순간 상당히 놀랐다. 다양성 확보가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심사장에서 세삼 깨달았다. 그날 심사위원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다. 할 수 없이 패자부활전을 치르며 이미 후보작에서 밀린 작품들을 다시 돌아보며 새롭게 후보작을 선정하였다. 의식적으로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작품들의 흐름을 살펴보고 다시 분류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고서 새로운 후보작을 쳐다보고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오후 화상통화로 싱가포르 국립대학 심사위원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다시 한 번 후보작을 조정하였다. 과정의 충실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 진행되는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길만이 건축설계시장 전체의 투명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참신한 두뇌들을 건축대학으로 유인하는 길이며, 나아가 젊고 유능한 건축사들이 국제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임을 확인하였다. ㉞



① 공모전 설명 ② 대상수상자 작품 설명 ③ 공모전 작업사진